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미래 기초의학의 지평을 연다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56개 선정 · 연구비 총액 277억 원 확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의과대학장 이동건 교수, 간호대학장 이선미 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 연구사업(1차)에서 56개 과제가 선정되며 총 약 277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에서 의과대학은 52개와 간호대학은 4개의 과제가 각각 포함됐다.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연구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공모가 진행됐으며, 올해 3월 13일 최종 선정 결과가 연구자 개별 통보 방식으로 발표됐다.

이번 선정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소속 교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생명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적인 연구 주제와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리더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연구' 사업에는 총 30명이 선정됐다. 또한 신진 연구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초기 단계부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진연구' 사업에는 총 24명이,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연구 수행을 지원해 핵심과학기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사업에는 2명이 선정됐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은 이번 성과를 연구자들의 미래 의학을 향한 도전 정신과 우수한 연구 경쟁력 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하며, 대학 차원에서도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자 및 연구목록 전문은
가톨릭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부성, 정환국 교수는 국내 간질환 연구와 진료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생성 이미지)

세계적 간염 연구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술까지 정환국·김부성



정환국 교수

김부성 교수

1960~70년대 한국이 '간염 왕국'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질환에 관한 상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 피를 파는 매혈이 횡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 환경이 열악하여 간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환국·김부성 교수는 국내 간염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한국 간질환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정환국(1922~1999) 교수는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간염을 일으키고 간경화로 진행되는지 그 병리 기전을 규명하고 예방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입니다.

1949년 대구의과대학(현 경북대 의대)을 졸업하고 한국전쟁 때부터 군의관으로 13년간 복무하며 만성간염 연구를 수행했던 정환국 교수는, 1967년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로 부임하며 본격적인 연구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환국 교수는 **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기초로 국내 유수의 간질환 센터를 마련했으며, 대한간학회의 전신인 한국간연구회를 창설(1981), 학문적 기틀을 닦았습니다.** 지금도 대한간학회는 초대 회장인 정환국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호 '간산千山'을 차용, '간산학술상'을 제정·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2년 2월, 서울 국제 간 심포지엄을 주도하며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한 것은 한국 의학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국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1982년 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임상의학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는 동북아시아 간염연구소로 승인되면서 국내 간염 퇴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환국 교수가 일궈낸 학문적 토대 위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술의 꽃을 피운 이는 제자 김부성(레오나르도, 1935~2023) 교수**였습니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김부성 교수는 국내 C형 간

염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탁월한 연구자이자,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수행의사로 발탁될 만큼 의료계·종교계에서의 신망이 두터운 의사였습니다.

김부성 교수는 최고의 전문성과 함께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인술의 실천자로 군의관 시절에는 월남 파병 중 마을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1980년대 헌혈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원 갤러너스(One Galloners)' 운동을 이끄는 등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이 단체는 1989년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로 출범하였는데, 김부성 교수는 초대와 2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약화된 인간 존엄과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수여받은 '성 그레고리오 대 교황 기사 훈장'은 평생에 걸쳐 의학적 전문성과 덕성을 겸비하고 자했던 김부성 교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질환 연구의 거대한 물줄기를 열어 의학적 성취를 이룩한 정환국 교수의 학구적 열정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김부성 교수의 정신은 오늘날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추구하는 전인치유의 두 기둥이 되어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글: 인문사회이학과 원주영 연구강사)

2형당뇨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낮다

당뇨환자 여성력-치매위험 상관관계 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 연구팀(제저자 내분비내과 유진 교수)이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수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과 함께 2형당뇨병을 가진 여성에서 가임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형당뇨병을 가진 폐경 여성 159,751명을 대상으로 평균 8.3년간 추적 관찰했다. 추적 기간 동안 총 24,218건의 치매(알츠하이머병 18,819건, 혈관성 치매 2,743건)가 발생했다.

분석 결과,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폐경 연령이 늦을수록 치매 발생의 위험이 낮았으며 가임기간이 40년 이상인 여성은 30년 미만인 여성에 비해 전체 치매 위험이 27% 낮았다. 또한 호르몬대체요법을 5년 이상 시행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17% 낮았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전국 단위 코호트와 장기 추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간 명확히 파악되지 않던 당뇨병 여성에서 생식 요인과 치매 위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국내 최대 규모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미국당뇨병학회 학술지 'Diabetes Care'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 효과 미리 안다

코 조직 유래 줄기세포 내 '뮤즈 세포' 비율과 치료 효과 상관관계 입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성원·신경외과 양승호 교수 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제저자 임정연·이정은 박사, 이민호 교수)이 알츠하이머병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그간 줄기세포 치료는 공여자별 세포 기능 차이로 인한 변동성이 상용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일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허비갑개 조직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분석해, 세포 내 '뮤즈 세포(Muse cell)'의 비율이 치료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뮤즈 세포 비율이 높은 줄기세포일수록 세포 증식과 다분화 능력이 우수했으며, 신경 보호를 위한 사이토카인 분비도 활발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모델 생쥐와 뇌 노가노이드에 해당 줄기세포를 투여한 결과, 뮤즈 세포 비율이 높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 개선 ▲아밀로이드 베타 및 타우 단백질 감소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순수 뮤즈 세포만 투여했을 때와 같았고, 배양 단계별로 변하는 뮤즈 세포의 비율 분석이 우수 세포를 선별하는 기준이 됨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생물학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국제 학술지 《Translational Neurodegeneration》(IF=15.2)에 게재됐다.



미토콘드리아 이식,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효과 입증

‘세포 대사 시스템 복구’라는 치료 패러다임 제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공동 교신저자)와 **이아람** 박사(제 1저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해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활막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으로 자가포식 기능이 마비되어 질환이 악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손상된 세포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자,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며 자가포식 기능이 회복됐고 염증성 세포 사멸 인자가 감소했다. 동물 모델 실험에서도 관절염 지수가 크게 낮아졌고, 공격적인 면역세포는 줄고 조절 면역세포는 늘어나 전신 면역 균형이 복구됐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지인 «Autophagy»(IF= 14.3)에 게재됐다.



출혈위험 감소시키는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 제시

BMI 28 미만 급성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 유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욱**(교신저자)·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부성현**(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비만하지 않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해 출혈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환자 2,68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약제 효능을 분석했다. 그 결과, BMI 28 미만인 환자가 시술 1개월 후 고강도 약제인 티카그렐러를 저강도인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했을 때, 기존 약제를 유지한 군보다 출혈 사건이 53% 감소했다. 심혈관 사망 등을 포함한 주요 복합 사건 발생률도 46% 낮아졌으며, 혈관이 다시 막히는 허혈 사건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비만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 안정기 이후 약제를 감량해도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됐고, 연구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IF=10.5)에 게재됐다.



종양 크기 작으면 경동맥 국소 치료로 생존율 향상

전이성 간암에서 경동맥 국소 치료 시 전신항암치료보다 생존율 상승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배시현** 교수팀이 간외 전이가 동반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중 종양 크기가 작은 환자의 경우, 경동맥 국소 치료가 전신항암치료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대한간암등록사업에 등록된 간세포암 환자 중 간외 전이가 동반된 2,517명을 선별해 분석했고, 그 결과, 경동맥 국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6.7개월로 전신항암치료군(3.7개월)보다 약 2배 길었으며 사망 위험은 약 40% 감소했다.

특히 간 내 종양 크기가 10cm 미만이거나 림프절 전이에 국한된 경우 국소 치료의 생존 이점이 뚜렷했다. 반면 10cm를 초과하는 거대 종양에서는 치료 간 효과 차이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환자의 종양 부담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간암 분야 권위지 «Liver Cancer»(IF=9.1)에 게재됐다.



조혈모세포 이식팀 다학제, 복합난치질환자 치료 성공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 말기신부전 동반 환자 치료법 제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신장내과 **정병하** 교수, 혈관이식외과 **박순철** 교수)과 조혈모세포이식팀(혈액내과 **박실비아** 교수)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과 말기신부전을 동시에 앓는 복합 난치질환자의 성공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그간 두 질환이 동반된 경우 치료 순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나, 의료진은 신장이식을 우선 시행했다. 치료받은 환자 4명은 전원 즉각적인 이식 신장 기능 회복을 보였고 거부반응이나 합병증도 없었다. 또한 이 중 2명은 신장이식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추가로 시행 후, 면역억제제 없이도 이식 장기가 유지되는 면역학적 관해 상태가 됐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은 나머지 2명도 수혈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등 골수 기능이 회복됐다. 이는 요독 제거와 면역억제제 투여가 혈액 질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미국이식학회 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IF=8.2)에 게재됐다.



비소세포폐암 초기 임상시험서 ‘유전자 매칭 치료’

표적치료군 객관적 반응을 30.8% 기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임정욱** 교수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형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초기 임상시험에서 유전자 변이 맞춤형 표적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환자 54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자 돌연변이에 맞춘 표적치료군과 비표적치료군의 성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표적치료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최대 30.8%를 기록하며 비표적치료군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전자 변이 매칭 치료 여부가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하는 독립적인 주요 인자임을 확인했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은 병리과 김태정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정밀 분자 진단 및 맞춤형 유전자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정밀종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npj Precision Oncology»(IF= 8.0)에 게재됐다.



위암 내시경 검진, 3년 이내 간격 시 사망 위험 감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최현호**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성수윤**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암 환자 2만 6,199명을 분석한 결과, 위암 내시경 검진을 3년 이내 간격으로 시행할 때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진단 전 검진 간격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검진군에서 미검진군 대비 위암 특이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3년 이내 검진군은 3년 초과 검진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29% 낮았다. 반면 2년과 3년 간격 사이에서는 사망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2년 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대규모 전국 데이터를 통해 3년 이내 검진이 사망률 감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지 «Gastrointestinal Endoscopy»(IF=7.5)에 게재됐다.



세 가지 시선: 숙련된 임상, 함께하는 PI, 철저한 정보보안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동희 교수

이동희 교수는 1995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성모병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제1 및 교신저자로 총 135편의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이자, 20여 년간 병원의 질 향상(PI) 업무에 참여해온 실무가이기도 하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한 그를 만나 진료 현장의 경험과 병원 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들었다.



(Network Separation)와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및 책임 모델(SRM) 정립 등 현장의 과제들을 짚고 있다. 이는 낱알이 복잡해지는 의료정보 환경 속에서 병원전산시스템과 환자정보를 보다 견고하게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동희 주임교수가 제시하는 '의료기관 정보보호 12대 과제'

- ① 생성형 AI 보안: 외부 모델 활용 시 민감 정보 유출 방지 대책 수립
- ② 거버넌스 강화: 전담 조직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 ③ 관리체계 인증: 상급종합병원 필수 요건인 ISMS, ISMS-P 인증 내실화
- ④ 인증 보안 고도화: EMR 무결성을 위한 다중인증(MFA) 및 FIDO 도입
- ⑤ 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연결 의료기기의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 ⑥ 공급망 보안: 협력업체 관리 및 기술적·물리적 망 분리 강화
- ⑦ 클라우드 책임 모델: IaaS·PaaS·SaaS 도입 시 책임 공유 모델(SRM) 정립
- ⑧ 비대면 의료 보안: 원격 진료 환경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호
- ⑨ 제로 트러스트 도입: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보안 패러다임 전환
- ⑩ 데이터 복원력 확보: 랜섬웨어 대비 신속한 재해복구(DR) 목표 설정
- ⑪ 보안 운영 자동화: SOAR 및 AIOps를 통한 관제 효율성 제고
- ⑫ 시윤리 및 규제 대응: 인공 지능법 준수 및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경북북부귀앓이환자들과 함께 한 23년

이동희 교수가 부임한 2003년 당시 의정부성모병원은 경북북부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었다.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시절, 그는 지역의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다.

“당시 이 지역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15여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서울로의 교통접근성도 나빠서 지역의 많은 귀앓이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고 우리 병원 교수님들이 이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임 초기에 제가 진료하고 수술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올 때 그 아이들이 잘 들으면서 커가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해왔다는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은 임상과장이자 주임교수인 그의 운영 목표에 영향을 줬다. 그는 국내 최대 규모인 8개 부속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병원의 특성을 살리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는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공유하는 ‘하나된 교실’을 강조한다. 선후배 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교실 문화를 정착시켜 구성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20여년의 PI 업무로 바라본 '사람'과 시스템의 관계

이 교수는 2004년 Six-sigm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PI/QPS위원장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PI 업무에 참여해왔다. 그는 PI가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 구성원들이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그의 바람은 모든 교직원, 특히 젊은 교원들이 PI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TQM(전사적 품질 관리)이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면, PI는 그 토양 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젊은 교원들은 진료와 연구의 압박으로 이 과정에 역량을 쏟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신세대 교원들은 조직에 헌신하는 동시에, 그 과정이 개인의 전문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상생의 직장을 지향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책임감으로 완성되는 삶. 이런 목가적인 환상은 신세대 교원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교원들이 PI와 TQM에 관심을 갖게끔 우리 의료기관의 시스템을 꾸리고, 그들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노력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병원의 안전을 설계하는 또 다른 시선, 정보보호

이 교수의 관심은 병원 시스템의 효율화를 넘어,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안전’의 영역으로까지 뻗어 있다. 그는 24년간 병원 안팎의 굵은일을 도맡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의료 현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정보보호와 보안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와 의료 사물인터넷(IoMT)의 확산, 원격 클라우드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보안 위협에 주목하며 기술적·관리적 대비를 강조한다.

“의료기관의 전산 마비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의료기관마저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Never Trust, Always Verify)’해야 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과 데이터 복원력(DR)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는 전자무기록 작성 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인증(MFA) 도입, 망분리

'건강(健康)'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료인의 자세

이동희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환자들에게 ‘건강’의 환자 풀이를 통한 메시지를 전했다.

“健(균셀 건)은 사람이 곧게 서 있는 모습이고, 康(편안할 강)은 곡식을 탈곡하여 먹을 수 있게 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가치의 정상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치료와 치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을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한편, PI 전문성과 정보보호에 대한 식견을 통해 병원의 안전을 고민하는 이동희 교수. 각기 다른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노력은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지향점으로 모아고 있다.



“하지 않을 이유 없었다” 손다혜 간호사의 생명 나눔 이야기

인천성모병원 병동간호팀 손다혜 간호사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나누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0병동의 손다혜 간호사는 최근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그 어려운 약속을 지켰다. 대학생 시절,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했던 기증 희망 신청이 작년 11월경 현실이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손다혜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망설임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했다. 며칠간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에 담았다.

손다혜 간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맡은 업무는?

저는 인천성모병원 10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손다혜입니다. 주로 심장혈관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당시의 마음가짐은 어떠셨나요?

대학 시절 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때는 꼭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아주 적다고 알고 있어서 만약 누군가 나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한다면 기적 같은 일일 것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신청했었습니다.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20살에 기증 신청을 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받은 이상, 간호사로서 기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동료 간호사, 병원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증 과정에서 병원의 배려나 응원이 힘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시 갑작스럽게 2박 3일간의 휴일을 신청해야 했음에도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흔쾌히 근무표를 조정 해주셨고, 잘 기증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기증 후 3일간 추가로 휴일을 주셔서 충분히 체력을 회복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좋은 일 한다, 멋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쁜 텐데도 촉진제 주사를 맞는 일을 도와주

도 하고 제 업무를 같이 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기증을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기증을 해 보니 절차나 통증 등 신체적 부담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국조혈모세포협회에서 아예 기증자는 오직 시간만 들이면 되도록 편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증할 때 필요한 피검사, 기본적인 검진, 병원 입원 일 등은 기증자에게 맞춰주어서 편하게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회는 기증 절차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불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어 번 해야 하는 피검사나, 조혈모세포가 말초혈에서 채집될 수 있도록 맞아야 하는 촉진제 주사, 혈관이 약한 경우 하게 되는 중심정맥관 등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생명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참을만한 통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촉진제를 맞은 다음 날부터는 요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혈모세포협회에서 미리 제공해 준 진통제를 복용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과거 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말초혈로 할 수 있어 기증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환자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다고 해서 병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되었더라도 분명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버텨주셨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기다릴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건강 상태가 되시도록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면?

되도록 선하게 살아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항상 선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만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기증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가다가 제 옆에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도 기증을 끝내고 병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니까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에게 기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해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단 며칠만 시간을 들여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신다면 귀한 생명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조금 있고, 시간도 할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과 조혈모세포를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비교해 볼 때, 나의 고통은 아주 가벼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질 내일을 꿈꾸는, 본인과 일치하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니 다들 기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원자분들의 숭고한 사랑

생명존중의 가치를 향한 그 깊은 사랑

2025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후원자분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CMC의 사명에 공감하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 사회공헌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데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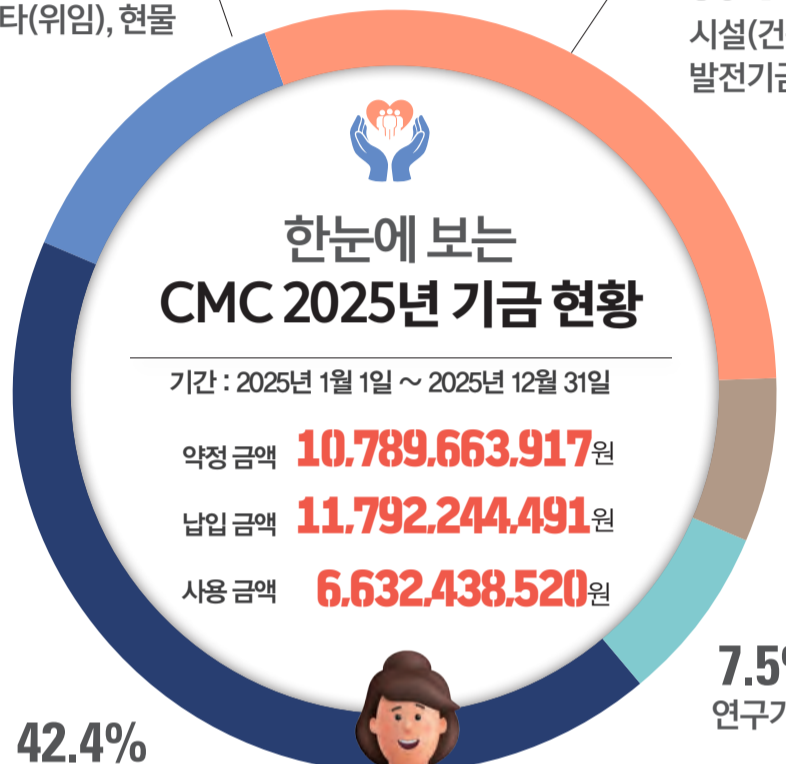
지난 한 해,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동행은 **11,792,244,491원 (납입액 기준)**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우리는 매 순간 현장에서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발전기금이 전년 대비 약 65%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기금을 넘어 CMC의 비전과 가치 자체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의 지지가 두터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부 주체별로는 기업 및 단체 후원이 약 61% 증가했고, 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기부금액이 상승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올해에도 가슴 뭉클한 나눔의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근면하게 일궈온 재산을 기탁하신 독자의 유산 기부부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환우를 위해 써달라며 정성을 모아주신 퇴원 환우의 고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해외 각지에서 보내온 동문들의 장학금과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전달된 지정 연구기금들은 '생명존중'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속병원별로도 진행된 산불 피해 지원, 기념일 기부 캠페인, 긴급 구호 모금 등 지역사회와 환우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도 값진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쉽 없이 이어지는 기부자분들의 아름다운 지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 넓고 깊게 퍼져 소외된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2025년 기부금 모금 및 사용 현황을 지면을 통해 공유해 드립니다.

12.9% 기타(위임), 현물

30.1% 시설(건축) 및 발전기금



7.1% 장학(교육)기금

7.5% 연구기금

42.4% 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기금

분야 ▶ 불우환우돕기 기금, 해외 의료선교 기금, 다문화·이주민·난민 돕기 기금, 국내 자선 기금

- 약정액 | **4,312,861,652** 원
- 납입액 | **5,000,820,690** 원
- 사용액 | **2,895,982,106** 원



시설(건축) 및 발전기금

분야 ▶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 병원발전기금, 교실·임상과·센터 발전기금, 의과대·간호대 발전기금

- 약정액 | **3,330,987,549** 원
- 납입액 | **3,543,671,549** 원
- 사용액 | **2,334,268,268** 원



장학(교육)기금

분야 ▶ 의과대·간호대 장학기금, 총수혜 학생 4,000명

- 약정액 | **1,000,000,000** 원
- 납입액 | **1,000,000,000** 원
- 사용액 | **1,000,000,000** 원



나눔으로 일군 2025년

앞으로 2026년에도 보답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 안내

후원 관련 안내

기부 순서

당신의 기부를 특별한 가치로 만들어 드립니다.



후원 문의

- ☎ 02-2258-7992~3, 7995~7
- ✉ cmcfund@catholic.ac.kr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별관 1층 발전기금팀



기부의 가치

<p>기부자가 지정한 분야에 100% 사용</p>	<p>환자·의료진, 학생을 위한 사회 환원</p>
<p>부속병원 이용 시 예우 제공 (금액에 따라 내용 상이)</p>	<p>도너스월, 아너스 갤러리를 통한 기부자 기억과 기념</p>

세제 혜택

- *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진료, 교육, 연구 분야는 **특례(법정)기부금**으로 사회공헌 분야는 **일반(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에 한함)

해외 기부

- * 미국 납세자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IRS) 승인 NPO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riends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
- ☎ (C) 347-409-2869 /
- ✉ E-mail. pasajohn@gmail.com

기부금영수증 발급

-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발행 요청이 가능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 * 기타 영수증 관련 사항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금

금, 대학원 장학기금

81명

632,385,700 원

839,928,656 원

115,802,700 원

연구기금

분야 ▶ 연구소·임상과·센터 연구기금

• 약정액	849,620,000 원
• 납입액	883,550,000 원
• 사용액	286,385,446 원

기타(위임), 헌물

분야 ▶ 기금 위임 및 헌물 기부

• 약정액	1,663,809,016 원
• 납입액	1,524,273,596 원

※ 헌물 기부 물품은 납입 즉시 모두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마르 16,7)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병원, 주님 부활 대축일 맞아 나눔 실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환우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영성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성모병원



영성부 사제들과 원목팀 식구들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환자와 교직원들에게 부활 선물 나눔을 했다. 나눔을 통해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교직원들이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다.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서울역과 남대문 일대 노숙인 250명을 찾아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마련된 선물 상자에는 훈제고기, 쌀국수, 라면 등 10가지 다채로운 음식을 담아 온정을 전했다. 백광열 성모자선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부활 계란 축복식을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 협력병원 및 유관기관 2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상훈 영성부원장과 원목팀을 중심으로 준비한 부활 계란과 간식 바구니를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지역 전역에 전달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협력병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성모병원



원목팀은 병동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부활 선물 나눔’을 진행했다.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병동 환자 516명과 교직원 2,123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부천성모병원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입원 환우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활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황재호 영성부원장 신부를 비롯한 원목실 신부들과 수녀들이 직접 병실을 찾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퇴원 후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여행용 수납 파우치를 전달했다.

대전성모병원



입원 환우와 교직원,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활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제동 원목실장 신부를 비롯한 원목실 관계자들이 병실을 직접 방문해 축복의 메시지와 간식을 전달했다. 강전용 병원장은 “입원 환우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6.05.15.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한*희
김*희
정*미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 양성교육 ‘영적 돌봄 워크숍 <같이 걸을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 대상 ‘영적 돌봄 워크숍 <같이 걸을까>’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영적 돌봄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참여형 교육으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방법을 익히고 영적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영적 돌봄을 단순한 종교적 영역이 아닌,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돌봄의 핵심 요소로 접근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영적 돌봄서를 활용한 경험 공유와 토론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성모병원 해외 의료진 연수 1,000명 돌파

중국·사우디·태국 등 아시아·
중동 의료진 방문 줄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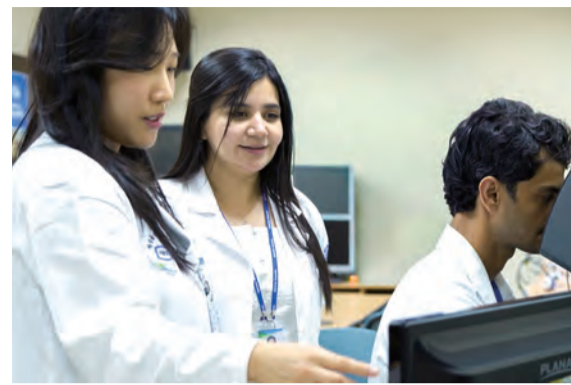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해외 의료진 연수와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의료 교육의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을 거처간 해외 의료진은 총 1,0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간 방

문객만 496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몽골 순으로 방문객이 많아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서울성모병원의 교육 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연수 분야는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등 고난도 수술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진료과에 집중됐으며, 특히 로봇수술과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이다.

서울성모병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복강경·내시경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복합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인튜이티브사로부터 아시아 최초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선정돼 글로벌 운영 체계 전수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수진의 해외 현지 교육 활동도 활발하다.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수술 시연을 진행하며 최신 술기를 전파했고,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는 스위스 의료진 대상 비대면 척추 내시경 교육 등 대륙 간 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홍성



후 교수는 영문 가이드 집필을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 기법을 체계화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앞으로도 국제 연수와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선진 의료 시스템과 지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리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최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기 도입

전신마취와 절개 없이 뇌종양·뇌혈관 질환
정교하게 치료해 환자 일상 회복 도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엘렉타(Elekta)사의 최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장비인 '에스프리(Espirit)'를 도입하고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축복식을 진행했다. 병원은 이번 센터 개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장비를 가동하며, 뇌 질환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양질의 맞춤형 치료를 제

공할 예정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전신마취나 피부 절개 없이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뇌 심부의 병소에 집중시키는 비침습적 방사선 치료법으로,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1회 조사해 하루 만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도입한 '에스프리'는 기존 장비의 정밀도에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더했다. 프레임으로 머리를 고정하는 기존의 정위를 방식뿐 아니라 비정위를 방식인 안면 마스크 타입으로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시술 직전 장비에 부착된 콘빔CT로 환자 머리를 촬영하고 이를 치료 전의 MRI 영상과 맞추어 방사선 조사 좌표를 정밀하게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뇌혈관 질환과 기능성 뇌 질환을 단기간에 정교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복식은 영성부원장 신하준 신부의 집도로 진행됐으며, 미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센터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환우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



워졌다.

이지열 병원장은 축복식에서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합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TAVI팀, 국제 학술행사 라이브 시술 세션 성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이 최근 태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 'TAVR ELEVATE 2026'에 참가해 고난도 라이브 시술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TAVR ELEVATE'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의 최신 정보와 고난도 임상 술기를 교류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 한국 등에서 중등도 이상 숙련된 오퍼레이터 60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인도, 한국이 각각 1건의 고난도 케이스를 맡아 시연했다.

은평성모병원 TAVI팀은 아시아권 환자에서 주요 이슈로 꼽히는 '작은 판막륜(Small Annulus)' 증례의 라이브 시술을 담당했다. 특히 90세 이상의 초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안전하게 성공시켜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학술대회 이후 태국심장중재학회가 은평성모병원에 먼저 TAVI 프로그램 교류를 제안해 올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은평성모병원 TAVI팀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도 시술 분야의 리더 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의료진과 다기



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최신 술기를 적극 도입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축적해 고난도 환자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MC 단신

여의도성모병원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과 MOU 체결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과 의학적·학술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의 안과 진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환자들에게 더욱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안과 분야 기술 정보 교류 ▲의료기기 사용 및 수술 술기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원내 교육센터를 활용한 의료진 연수 및 학술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부천성모병원

'Medical Korea 2026'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개최된 제16회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는 국내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 국제 컨퍼런스이다. 부천성모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국제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직원 예비자 교리 입교식 거행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병원 내 성당에서 교직원 예비자 교리 입교식을 거행했다. 예비자 교리 입교식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예식으로, 이날 입교식에는 총 29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신앙을 배우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교식에 참여한 교직원은 20주간 교리 교육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스마트 모바일 입원수속 서비스 개시



은평성모병원이 입원수속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스마트 모바일 입원수속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입원 당일 직접 작성하던 입원 동의를 모바일로 대체해 입원수속 대기시간을 줄인다.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을 활용해 고령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는 입원 당일 오전, 병실 배정 알림톡으로 동의를 확인한 뒤 전자 서명을 하면 된다. 나아가 병원은 추후 비대면으로 입·퇴원수속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

전장엑솜시퀀싱(Whole Exome Sequencing, WES) 검사 도입



인천성모병원이 진단검사 의학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장엑솜시퀀싱(WES)' 검사를 도입했다. WES는 단백질 생성 유전자인 엑손 영역 전체를 분석하는 검사로,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살펴 기존 패널 검사보다 변이 식별 범위가 넓다. 특히 원인 유전자 발견 가능성이 높아 정밀 진단에 유리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재분석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성모병원

어깨관절의 날 건강강좌 성료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개최한 '어깨관절의 날' 건강강좌가 환자와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대한견주관절학회 주관하는 어깨관절주간을 맞아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지중훈 교수와 김경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어깨 인공관절 치료', '어깨관절의 수술'을 주제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재활의학팀 문유리 물리치료사가 '어깨질환의 재활 운동'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소개했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바이오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로경 영대학원 신광수 교수가 최근 기술경영경제학회 바이오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술경영경제학회는 지난 1992년 창립된 국내 기술혁신 연구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신 교수는 보건의로기술경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정책 의 제 발굴과 실행 전략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다.

2026 한국각막학회 국제학술대회 Best Presentation Award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윤혜연 교수가 2026 한국각막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Best Presentation Award 1위를 수상했다. 윤 교수는 '고분자 코팅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감염성 각막염 치료 연구' 발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감염성 각막염의 주요 원인균 가운데 하나인 녹농균을 대상으로, 고분자 코팅이 적용된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의

항균·항염 효과를 평가한 전임상 연구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교수가 최근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국가 외상 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공로로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의사 탐승 119헬기 및 현장 출동 체계 확립이 꼽히며, 이외에도 외상 교육 과정 개발과 후학 양성에 힘쓰며 국내 외상 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천성모병원 지희정 중앙전문간호사가 최근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희정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치료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

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항암치료 전 과정에 대한 환자 교육과 자가간호 지도를 실시하고, 간호사 대상 전문지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해 보다 안전한 항암치료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가 최근 개최된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분산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고안된 모델로,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입원 중인 병동에서 완화의학과로 전과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환자는 기존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돌봄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경기도간호사회장 공로상 수상

성빈센트병원 간호부 수술간호팀 김은실 팀장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회무공로상을 수상했



다. 김은실 팀장은 수원시 간호사회 총무를 역임하며 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성 강화와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김 팀장은 성빈센트자선회 해외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타의 모범이 되어왔다.

'수액관 꺾임 방지 장치' 특허 등록



성빈센트 병원 신경외과 김영일 교수가 진료지원 간호팀 신자영 간호사와 함께 수액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액관 꺾임을 방지하는 의료 보조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특허는 '수액관의 꺾임 방지 장치'에 관한 기술로,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액관의 절곡(kinking)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삼성화재와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위한 MOU 체결

의료 · 보험 · 연구 협력 통해 예방 · 관리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본격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삼성화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고객 중심의 통합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자 간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

장,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예방 · 관리형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삼성화재는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모델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및 암 생존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 기획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의료와 산업 간 협력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하고, 의료 · 보험 ·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0년 역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미래형 의료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임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서비스 역량과 결합해 환자의 치료 이후 일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로 확장해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 대학

2026년 제66회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 합격'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2026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우수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지난 1월 23일 시행된 2026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본교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79명 전원이 합격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미래 지향적 간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보건으로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인천 성모

인천시와 퇴원환자 돌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관내 의료기관 등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중증 만성질환, 골절,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돼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돌봄 연계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의료 · 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대비해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빈 센터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재오픈 축복식 거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23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리모델링은 공간과 장비,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공간을 전면 개편해 여성의학검사실과 VIP룸을 신설하고, 검진 동선을 최적화해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장비 측면에서는 최신 프리미엄 CT인 'Revolution APEX Elite'를 도입해 방사선량은 낮추고 진단의 정확도는 높였다.

스마트 검사 시스템도 강화됐다. AI 기반 망막 혈관 검사와 스마트 심전도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며, RFID 손목밴드로 검사 대기 및 이동 안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특화, 심혈관 정밀, 직장인 오후 검진 등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특히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시 진료의뢰서 없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로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와 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이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와 의료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협약식은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눈의 성모회 산하 성마리아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빈센터병원 병원장 임정수 쿄베 수녀와 의무원장 이강문 교수를 비롯해, 눈의 성모회 이데 요시오 이사장, 이데 타이 시 부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학 · 의료 기술과 학술 연구는 물론, 영성과 조직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교육 · 연수와 교류 활성화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상호 협력을 통한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이어온 의료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 CMC-LINK SOAR 플랫폼 사업단 공식 출범

AI 기반 연구성과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의료 혁신 선도



- ☑ 연구 마일스톤 실시간 관리
- ☑ 연구자 맞춤형 업무 지원
- ☑ TRL 추적 및 단계별 지원
- ☑ 임상 진입 준비 및 실행 지원
- ☑ 리스크 조기 감지 및 병목 해결

특화 개방형 R&D 도약 플랫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차세대 글로벌 Top-Tier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CMC-LINK SOAR 플랫폼 사업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병원의 연구 체계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연구 성과가 지체 없이 의료 현장으로 연결되는 혁신적 구조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연구성과 통합관리 플랫폼을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의 연구가 분절된 데이터와 수동 관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면, 앞으로는 AI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준비도)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한다. 이 플랫폼은 연구 데이터를 통합 축적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연구자가 창의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장한다.

사업단은 혈액/면역질환, 디지털 임상, 첨단융합바이오, 정밀재생의료 등 4대 특화 플랫폼을 필두로 미래 의료의 난제 해결에 나선다. 각 플랫폼은 AI 기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천 기술 확보부터 임상 실용화까지 전 과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및 CDMO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산업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후 사업단장(로봇수술센터장, 비뇨의학과)은 “AI 플랫폼은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실용화를 돕는 명확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실의 성과가 진료 현장의 혁신으로 직결되는 지능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스타그램

Since 2026. 4. 8

여의도성모병원의 소소한 오늘. 사진 한장, 한마디도 환영합니다



✦ C스타그램 참여 가이드라인

- 무거운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 🌿 완벽한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오늘의 소소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주세요
- 📝 긴 글 쓰실 필요 없어요 | 짧은 한 줄, 사진 한 장도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 ♥ 부담 갖지 마세요 | 좋아요 하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동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직군도, 직급도, 부서도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올리고 댓글 달 수 있는 공간이에요

90

주년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대한 연골 및 골관절염 학회 회장 취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가 지난 3월 20일 열린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 정기 총회에서 임기 1년의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는 관절 연골 손상 및 골관절염 분야의 연구와 치료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국내외 학문적 교류와 최신 치료 기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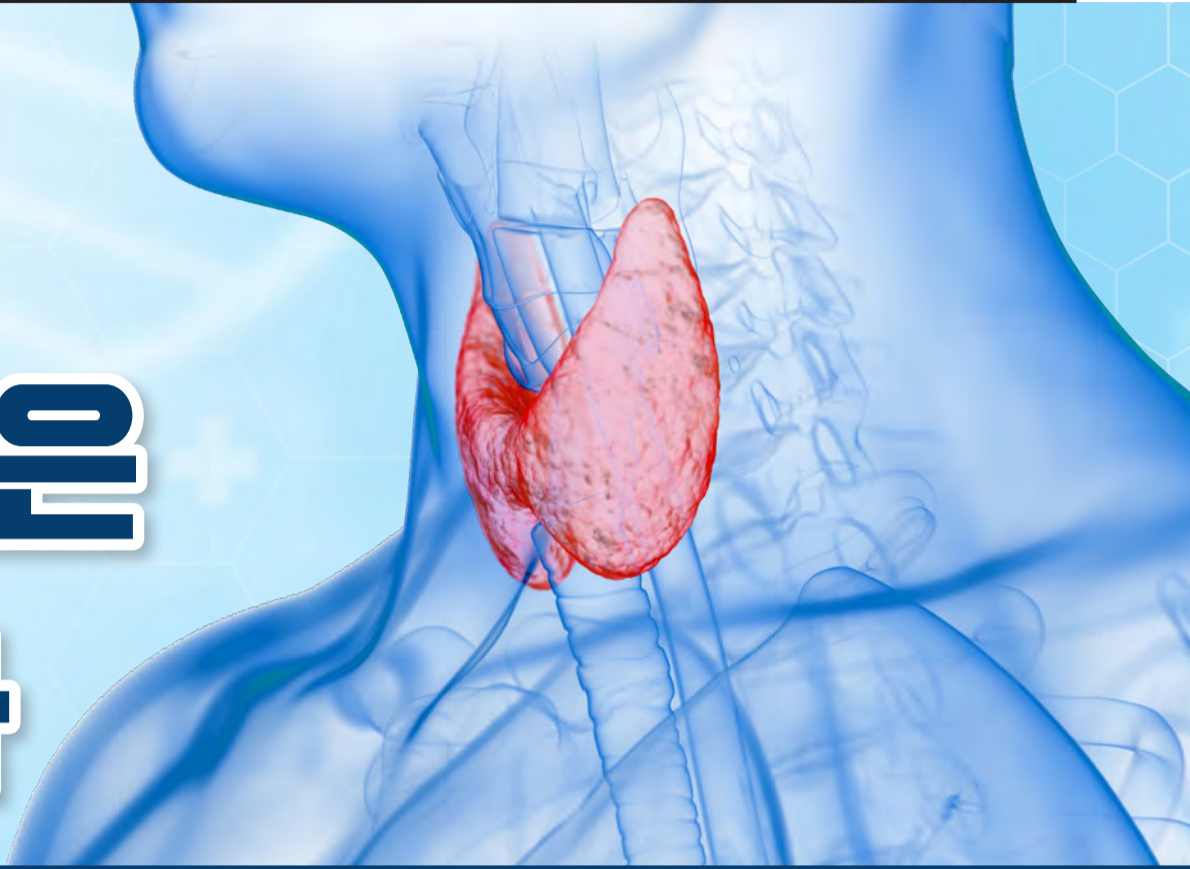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석중 교수는 무릎 및 관절 질환, 연골 손상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연골 재생 치료와 골관절염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매진해왔다. 다수의 우수한 학술 논문 발표와 활발한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김석중 교수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골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1년의 임기 동안 임상과 기초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학회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김석중 교수의 학회장 취임을 계기로 정형외과 및 관절 질환 치료 분야에서 병원의 전문성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에 ‘착한’ 것은 없습니다



‘착한 암’이라는 오해, **갑상선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

암의 분화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유두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비교적 진행이 느리지만 림프절 전이가 빈번함
- **여포암**: 혈행성 전이를 특징으로 하며, 폐 및 골 전이 가능
- **수질암/미분화암**: 발생 빈도는 낮으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치명적인 고위험군 해당

치료 및 수술 방법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 **수술적 치료**: 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전절제 또는 반절제 시행, 최근에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내시경/로봇 수술 활발
- **방사성 요오드(동위원소) 치료**: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위한 목적
 방사성 동위원소를 캡슐 형태로 경구 투여하거나 필요시 정맥 주사 등을 통해 체내로 투여
- **호르몬 약물 치료**: 갑상선 절제 후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함

갑상선 질환 의료진

	갑상선내분비외과		내분비내과			
	성기영 교수	김영민 교수	김성래 교수	이성수 교수	손장원 교수	문혜원 교수
오전	화, 금	목	월, 수, 목	수, 목	화, 금	월, 화
오후	화	수	화	월, 화	수, 목	수, 금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더 정교하게! 더 안전하게! **다빈치 SP** 추가 도입 초정밀 로봇수술로 대기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빈치 SP



이용석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단 한 번의 절개로 흉터와 통증은 적게! 일상복귀는 빠르게!

✔ 부인과 질환 ✔ 비뇨기 질환 ✔ 암 ✔ 장기이식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 외과
- 이비인후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부인과 종양, 자궁탈출증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 비대증, 수신증, 방광류, 요로결석

신장이식, 직장암, 대장암, 위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 및 췌장 질환, 탈장, 직장탈출증

두경부 종양, 갑상선암

폐암, 종격동 종양